



우리가 치르는 댓가

미국폐협회 (ALA) 자료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흡연인구는 지난 '65년 40%에서 '90년에는 25.5%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인구는 4천 6백만명에 달하며, 담배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는 2백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흡연이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에 미치는 비극적 종말이 되고 있는 심각성을 제고하면서 미국폐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 미국결핵협회 National TB Association;의 전신)는 이미 1985년대 이전부터 금연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당시의 흡연으로 인한 심각성에 대비한 미국폐협회 (ALA)의 자료를 재조명해 보고 그때 담배의 위해성을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그동안 4회에 걸쳐 알아보았다. (역자 주)

조근수 역/결핵협회 홍보부장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누구라도 흡연 습관이 돈이 적게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담배한갑에 1달러 20센트면 연간 그 값은 4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라이타는 계산에 넣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우므로서 생길 수 있는 담배달러에 의한 셔스나 벡타이, 스카프나 드레스, 그리고 가구나 카펫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서라도 그 값은 엄청나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댓가를 적은 용돈으로 잊어버리고 만다. 실제로 한 추정되는 통계에 의하면 이런 댓가는 540억달러에 달한다. 즉 실

직에 의한 생산성손실이 연간 304억달러 그리고 의료비로 233억달러나 된다.

1984년도에 미국홍부학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는 중년 남자는 가외로 지출되는 의료비와 그로 인한 수입손실 때문에 그의 생애기간중에 34,000달러를 잃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실화로 인한 댓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1984년에 담배달러로 인한 화재로 4억1천만달러에 해당되는 재산을 잃었다.

손실을 보는 것은 흡연자뿐이 아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들이 높은 건강보험금 지급과 높은 세금납부

의 짐을 부담하는 많은 보건건강 댓가를 절머지게 된다. 실은 흡연자가 이런 댓가를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그 댓가를 더 부담시키는 한 방법으로 현행 담배 갑당 부담하는 16센트의 국내물품세를 증액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세금이 미국공중에 대한 흡연의 경제적 댓가가 올바르게 반영된다면 최소한 한갑당 2달러가 되어야 한다.

더 높은 국내물품세를 부담시킴으로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려는 수많은 젊은 층에게 충동을 억제하여 생명을 구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기성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끊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폐협회와 미국흉부학회의 대정부단은 각 입법 및 행정부 관계부처에 더 높은 국내물품세 부과와 더불어 폐건강에 관련되는 대책을 세우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담배의 국내물품세부과는 「담배와 건강 연합체」의 주요 우선사업이며, 그 연합체는 “미국폐협회”, “미국암협회” 그리고 “미국심장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담배산업체의 힘에 대항하려고 구성되었다.

국내물품세부과가 “담배없는 사회” 구현에 유일한 방법으로써 의사회의 2000년 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타 노력으로는 공공건물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도 흡연금지와 제한을 목표로 두고 있다. 미국폐협회가 의뢰한 1985년도 갤럽조사에 의하면 8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의 흡연반대, 또는 흡연과 비흡연장소의 분리를 바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비흡연자에서는 92% 그리고 흡연자

들도 80%가 동의하였다) 이런 조사결과에 의하여 워싱턴 D.C와 40개 주에서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제한법이 제정되었고, 군과 마을에서도 작업장에서의 흡연관리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 산업체에서도 금연정책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많은 상사나 회사들은 근무중 흡연규제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많은 기업체들이 완전금연을 하거나 일부는 흡연자 채용을 거절하기도 한다.

흡연제한정책을 하는 회사는 하위직에 까지 영향이 미친다. 즉 사장은 담배피우는 사원에게 잃게 되는 생산성과 근무중단은 결국과 많은 보험부과금 등의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정책은 죽음으로 인한 생명단축이나 불구가 되는 핵심직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관리상의 두려움에까지 미치게 된다. 차츰 많은 회사에서는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간접흡연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담배없는 환경이 작업장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다. 그러므로서 직장인들은 남이 피운 담배의 연기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담배습관에서 벗어나려는 흡연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와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많은 자료의 개발과 끊임없는 행동과 노력을 본 미국폐협회가 각 주지부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서 “뉴욕 타임즈”지는 미국폐협회가말로 비흡연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투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

(American Lung Association Annual Report)에서